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7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제7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주최 나라현

후원 일본국 총무성, 일본국 외무성,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2016.11/6(일) ▶ 8(화)

The 7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 7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 목 차 】

프로그램	2
인 사	3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4
실무자 토의	
테마 1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8
테마 2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14
테마 3 「저출산 대책의 추진」	19
기조강연	25
수장 토의	
테마 1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26
테마 2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34
테마 3 「저출산 대책의 추진」	42
분과회 등 보고	50
총회	53
대표기자 회견	54
신문 기사	61
자료집	67
◇테마 1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강사 스피치자료]	69
[리저널 리포트]	97
· 안후이성	98
· 청두시	100
· 둥잉시	102
· 서자바주	104
· 말라카주	106
· 충청남도	108
· 서산시	110
· 투아티엔후에성	112
· 후에시	114
· 니가타현	116
· 이시카와현	118
· 기후현	120
· 미에현	122
· 나라현	124
· 다가조시	126
· 다자이후시	128
· 가시하라시	130
· 시모이치초	132

◇테마 2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리저널 리포트]	135
· 장쑤성	136
· 쑤저우시	138
· 린이시	140
· 공주시	142
· 부여군	144
· 푸톈성	146
· 야마가타현	148
· 나가노현	150
· 와카야마현	152
· 시마네현	154
· 구마모토현	156
· 나라현	158
· 니가타시	160
· 나라시	162
· 고세시	164
· 아스카무라	166
· 고료초	168

◇테마 3 「저출산 대책의 추진」

[강사 스피치자료]	171
[리저널 리포트]	183
· 시안시	184
· 육야카르타 특별주	186
· 경기도	188
· 경상북도	190
· 후쿠시마현	192
· 후쿠이현	194
· 야마나시현	196
· 시즈오카현	198
· 교토부	200
· 돗토리현	202
· 도쿠시마현	204
· 가가와현	206
· 나라현	208
· 아라카와구	210
· 덴리시	212
· 이카루가초	214

※직함은 회합 당시의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제7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요

2016

● **11/6(일)** ————— 호텔 닛코나라 · 나라로얄호텔

- 14 : 00 – 17 : 30 양자회담
- 19 : 00 – 20 : 30 웰컴 리셉션

2016

● **11/7(월)** ————— 호텔 닛코나라

- 08 : 30 – 08 : 45 오리엔테이션
- 08 : 45 – 12 : 00 실무자 토의 (사례 발표)
- 12 : 00 – 13 : 00 중식①
- 13 : 00 – 13 : 20 개회식
- 13 : 20 – 13 : 50 기조 강연
- 13 : 50 – 14 : 20 분과회 등 보고
- 14 : 30 – 17 : 10 수장 토의
- 17 : 10 – 17 : 40 총회
- 17 : 40 – 18 : 00 기념 촬영
- 18 : 10 – 18 : 45 대표기자 회견
- 19 : 00 – 21 : 00 교류회

2016

● **11/8(화)** ————— 호텔 닛코나라

- 09 : 00 – 12 : 00 익스커션 (나라국립박물관, 와카쿠사야마 산)
- 12 : 00 – 13 : 00 중식②

인사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가 이곳 나라현에 모여 실시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이번으로 제 7회를 맞이한다.

이 회합은 지방정부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각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내어 도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서로 배우며 의견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반드시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회합이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7회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다른 지방정부 대표 여러분들과 우호교류를 돈독히 하여 각 지역의 발전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테마는 회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진흥, 고령화, 사회보장, 관광, 농업 문제 등이 공통적인 과제이며 오늘은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과 지역경제의 발전’, ‘저출산대책의 추진’ 이라는 3가지 테마를 거론하였다. 과제해결을 위한 지역의 선진적인 활동과 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합이 되었으면 한다.

가을의 청명한 날씨도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으니 부디 나라현의 아름다운 가을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회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시하라 노부오 일반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저는 지방자치체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과제에 대한 연구와 상담에 응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성청과도 조정을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한 관계로 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매년 참가안내를 받고 있다.

이 회합에 출석해서 느낀 것은 각 지방정부 여러분이 직접 주민과 접하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면하는 과제는 다양하지만 그러한 과제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해결책의 힌트를 이끌어내려는 이 회합은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합은 헤이조천도 1300년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가하시는 지방정부 여러분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된다고 실감하고 계실 것이다. 그 결과, 참가하는 지방정부 수와 참가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너무나도 기쁩 따름이다. 아라이 지사를 비롯한 나라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합이 보다 뜻깊은 것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Anhui Province	
WANG, Xin	Director General, Foreign Affairs Office of Anhui Provincial People's Government
Chengdu City	
GAO, Jianjun	Deputy Secretary General of Chengdu Municipal Government, Chengdu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Xi'an City	
CHEN, Zhong	Director, Finance and Economic Department of Xi'an People's Congress
Suzhou City	
MA, Hongzhong	Vice Chairman, Secretary General, Suzhou Municipal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mmittee, Suzhou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Dongying City	
HAN, Wei	Deputy Director, Urban and Rural Planning Bureau of Dongying City

Republic of Indonesia

Name	Organization
Province of West Java	
Ahmad Heryawan	Governor, Province of West Java
Province of Yogyakarta Special Region	
Ratnawati Evi Maria	Head,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 Yogyakarta Office

Malaysia

Name	Organization
Melaka State	
Mohd Nasir Sheikh Salim	Secretary of Local Authority, Melaka Historic City Council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KANG, Kyoung A	Project Manager, Women & Family Bureau
Chungcheongnam-do Province	
YOON, Jong In	Vice Governor, Chungcheongnam-do Province
Gongju City	
KIM, Sang Tae	Director, Rural Development Division
Seosan City	
LEE, Su Young	General Director, Resident Support Bureau Seosan Municipal Office (City Hall)
Gyeongsangbuk-do Province	
JUNG, Jin Woo	Director, Division of Global Trade Cooperation & Foreign Affairs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Name	Organization
Phu Tho Province	
BUI Van Quang	Permanent Deputy Secretary, Phu Tho Provincial Party Committee
Thua Thien Hue Province	
NGUYEN Van Cao	Chairman,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Hue City	
CHAU Van Loc	Vice Chairman, Hue City People's Committee

Japan

Name	Organization
Yamagata Prefecture	
TAKAHASHI, Koichiro	International Affairs Planning Specialist, Inbound Tourism and International Exchange Division
Fukushima Prefecture	
ABE, Hidehiro	Office Director, Osaka Office Fukushima Prefecture
Niigata Prefecture	
HOSAKA, Saki	Administrative Staff,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Governor's Policy Bureau
Fukui Prefecture	
IWAKABE, Akemi	Director, Children and Family Affairs Division
Yamanashi Prefecture	
KOJIMA, Toru	Deputy Director General, Strategic Policy Planning Department
Nagano Prefecture	
KITAHARA, Tomihiro	Director Gener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Shizuoka Prefecture	
YAMAGUCHI, Shigenori	Director,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Mie Prefecture	
YOKOTA, Koichi	Vice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Economic Affairs
Kyoto Prefecture	
NAKAMOTO, Haruo	Director General for Children's Affairs and Declining,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Wakayama Prefecture	
FUJIKI, Norihiro	Associate Director, Regional Policy Division Planning and Policy Bureau Planning Department
Shimane Prefecture	
SAKAMOTO, Nobuhisa	Department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okushima Prefecture	
TAO, Kanji	Department Head, Environment and Citizens' Affairs Department
Kagawa Prefecture	
KUDAI, Yuji	Councilor, Kagawa Prefectural Government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Nara Prefecture
Tagajo City	
KIKUCHI, Kenjiro	Mayor, Tagajo City
Niigata City	
SHINODA, Akira	Mayor, Niigata City
Nara City	
NAKAGAWA, Gen	Mayor, Nara city
Tenri City	
NAMIKAWA, Ken	Mayor, Tenri City
Kashihara City	
MORISHITA, Yutaka	Mayor, Kashihara City
Gose City	
HIGASHIGAWA, Yutaka	Mayor, Gose City
Ikaruga Town	
KOJO, Toshishige	Mayor, Ikaruga Town
Asuka Village	
MORIKAWA, Yuichi	Mayor, Asuka Village
Koryo Town	
YAMAMURA, Yoshiyuki	Mayor, Koryo Town
Shimoichi Town	
HORIUCHI, Hirofumi	Assistant Director, Community Development Promotion Division

Name	Organization
Nara Prefectural Assembly	
KOIZUMI, Yonezo	Vice Chairperson
MATSUO, Isao	Chairman, Committee on Economic and Labor
TSUBUTANI, Tomoshi	Chairman, Special Committee for Measures against Declining Birthrate and for the Promotion of Women's Roles in Society

개요

Overview

The 7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실무자 토의 테마1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쑤저우시, 쓰촨성 청두시, 산둥성 동잉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산시 베 트 남 : 투아티엔 후에성, 투아티엔 후에성 후에시 일 본 : 나라현, 미야기현 다가조시,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현 시모이치초
강 사	고토 겐이치 (주) Prot Asia and Pacific 대표이사 사장

리저널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개요



중국 · 안후이성

중국의 급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안후이성에서도 새로운 성장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특히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수요가 매우 높으며 주류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안후이성은 요리, 차, 고대건축물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부지역을 국제문화 모델구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객을 위한 표식과 화장실 등의 인프라정비, 자연환경의 개발과 보호의 균형 등 종합적인 관광개발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모델구 전체를 관광지로서 일체화시켜 '아름다운 중국' 만들기의 모델구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의 보호에 힘쓰며 특색있는 문화를 어떻게 관광과 경제발전으로 연결시켜 갈지를 고안하고 있으며 문화와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인재육성도 급선무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 청두시

도시부를 둘러싸듯 농촌이 펼쳐지는 청두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일체가 된 발전을 지향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 시스템 속에 농촌부도 포함시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소규모 마을에는 각각 플래너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농촌부에서 300세대를 상한 단위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진료소, 공중화장실, 초등학교, 공공서비스센터 등의 정비, 도로와 통신설비 등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대한 농지를 가진 청두시는 농지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농민을 그룹화시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시도 등을 통해 농업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 동잉시

동잉시에서는 황하 델타지대에서 기계와 자동차 타이어 등의 공업이 발전하고 있다. 현재 특히 토양의 알칼리화가 문제가 되어 생태와 환경의 보호가 급선무로 되어 있다. 중국정부도 황하 델타지대의 에코화를 추진할 방침을 내세워 국가 레벨의 보호지역으로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교통정비와 녹화추진사업 속에서 습지공원과 삼림공원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시야에 넣어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마을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농업지역과 생태보호지역 등으로 구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을 책정해 간다. 또한, 토지활용의 효율화와 3차산업으로의 시프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그린화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인도네시아는 인도-오스트레일리아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장소에 위치하여 그 지질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틸레투 지오파크 정비사업은 정부와 민간부문, 대학, 지역 등의 연계로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의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스테이크 홀더와 협력하여 인프라 정비와 관광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질학적, 생물학적 다양성의 조사,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저력을 높이고 보전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 홀더 간의 조정이 과제로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말라카주에서는 말라카강의 재생과 아울러 말라카 시가지를 역사적 유산으로서 활용하여 마을의 상업발전을 지향하는 재생, 미화 프로젝트를 내걸어 주 연방정부에서 큰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사업에 의해 말라카주의 가치가 올라가 말라카강 유역은 크게 발전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말라카는 영국과 포르투갈에 의한 통치시대부터 오랜 역사가 낳은 다양한 문화와 에스닉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고 도시 환경은 시의회의 규제로 보호되고 있다. 말라카주에서는 관광분야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광객도 재생 프로젝트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제 2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국내외로부터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 충청남도

2012년에 도청을 농촌지역으로 이전시켜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많은 공공기관을 앞으로 이전시킬 예정이어서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살린 'GREEN CITY'의 추진,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전봇대, 보도교, 쓰레기, 담, 표식이 없는 '5무 도시'를 지향한 쾌적한 도시만들기,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추진, 광고물 등에 공공 디자인을 도입한 공공 디자인 도시의 구축, 학교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집중시켜 지역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교육특화도시의 정비, 도시 전체의 배리어 프리화와 재해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도내의 시와 군별로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살아 있는 '창조도시' 만들기를 지향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난개발 방지대책과 도시관리의 통합운용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 서산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내에서는 조개류와 낙지 등이 양식되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환경변화에 따른 어장감소와 고령화, 홍어에 따른 어업의 쇠퇴가 과제로 되어 있다. 모시조개 가공시설과 어업생산 인프라인 어항정비, 어장관리선의 건조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로서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관광형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발굴하여 갯벌마사지, 해양체험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 활기찬 지역으로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어업과 관련된 정기 축제의 개최와 직거래 판매소의 정비,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 투아티엔 후에성

투아티엔 후에성에는 탐 장 카우 하이라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지역이 있어 맹그로브림을 재배하는 등 환경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개발과 자원개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울러 연안지역의 환경보호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의식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자연보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풍요로운 자원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개발과 환경보호를 양립시킴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국제화에 주력해 가고자 한다.



베트남 · 후에시

후에시는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며 성도로서 성 전체의 인솔역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화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배수와 쓰레기 수집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계획하고 또 무역, 수공업, 교육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관광지의 도로도 정비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향강 연안 개발과 선상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 기타 환경과 위생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 가고자 한다. 시 남부에서는 JICA(국제협력기구)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에 따른 수자원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높은 인구밀도, 과밀한 교통량, 자금부족으로 인한 구획정비의 지연, 낮은 환경보전의식 등의 과제가 있다.



일본 · 나라현

고조신마치에서는 전통가옥의 마을풍경을 지역자원으로서 보전 및 활용하고 있으나 가옥 자체는 사유재산이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 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전통가옥의 앞 공간을 활용한 관민 연계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8만명이 찾아오는 대형 행사가 되어 마을풍경이 가진 저력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재인식시킴으로써 보전의식이 향상되었다. 또한, 관민 펀드를 활용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한 레스토랑 개업이 지역의 모델케이스가 되어 빈집 활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가의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어 비용면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의 증가와 민간단체 스태프들의 고령화와 같은 과제가 남아 그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



일본 · 다가조시

올해 3월 다가조역 앞에 시립도서관, 서점, 음식점 등이 입주한 ‘지적 거점’ 시설이 오픈되었는데 예상을 웃도는 입장자가 방문하여 약 7개월만에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 연간 160만명을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시청, 음향시설이 우수한 홀을 가진 문화센터, 현립도서관, 특별사적인 관청터를 포함하여 ‘도호쿠 지방 제일의 문화교류거점’ 을 형성하고자 국가의 지방창생사업을 활용하여 신설된 도서관에서는 ‘세계의 그림책 전람회’ , 문화센터에서는 오페라 등도 상연되고 있다. 일찌기 나라 지방을 중심으로 서쪽의 다자이후, 동쪽의 다가조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고대국가를 형성했던 인연에서 나라 지방의 도다이지 사찰과도 교류가 있어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도다이지의 최고책임자께서 방문해 주셨다. 2018년도에는 다가조 시내에서 ‘도다이지전’ 이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 가시하라시

국가의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가시하라시 이마이초는 조용한 주택지로서 마을풍경의 보존과 주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이 증가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빈집을 현재의 수요에 맞는 용도로 재이용하여 지역활성화로 이어질만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빈집을 방과후 어린이건전육성시설 ‘이마이 학동 클럽’ 으로 활용하거나 현립 의대와 연계하여 마을의 의료거점 시설로서 이용을 추진하는 ‘의학을 토대로 한 마을만들기’ 구상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빈 마차야를 소개하는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빈집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목조 일본가옥의 빈집을 수리하려면 전통공법을 구사하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근년 이 기술자가 급격히 감소 경향에 있다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어 인재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네트워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 시모이치초

시모이치초는 ‘지역이 활기찬 마을만들기 추진’ 을 테마로 ‘요시노 시모이치 이주·정주화사업’ 으로서 지역교류시설의 정비와 빈집뱅크 등록추진, 지역의 수용태세와 빈집, 일거리, 지역의 매칭 지원, 지역교통의 정비, 지역의 매력창생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 의 마을창생사업으로서 소규모 거점사업, 지역산업 스텝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삼림이 풍부하고 농업, 임업, 상업, 목공업 등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시모이치초는 나라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수많은 특산품을 가진 역사깊은 시장도시이나 인구감소가 진척되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주·정주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간 소비액의 지역 외 유출이 많기 때문에 지역 밖에서의 소비 유입을 촉진하여 산업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시’ 의 마을창생으로 연결시켜가고자 한다.

의견 교환 내용

- 안후이성의 하천과 호수의 수자원 보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천 상류의 수질이 개선된 경우에는 하류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을까 고안중이다. 나아가 이 장려금을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의 고양' 등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으면 한다.

(중국 안후이성)
- 하천 등의 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줄 만한 대책도 실시해야 하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로부터의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베트남 후에시)
- 현재 새로운 도시 조성이 진척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토지조성의 기본적인 개발은 민간에서 실시하고 행정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다. 행정의 주된 역할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계획을 확인하거나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모니터 하는 것 등이다.

(한국 충청남도)
- 도시부의 발전을 농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투자를 농촌에 되돌리려고 한다. 또한, 농촌부의 빈집대책으로서 가옥을 농지로 되돌리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청두시)
- 관광객을 지역의 민가나 공공시설에서 홈스테이로써 들이는 것은 그 자체가 수입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하여 잘 아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상호 메리트가 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 시모이치초에서 나무젓가락의 발상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역민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발상지' 라는 것은 지역활성화를 논할 때 매우 매력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토 강사)
- 빈집 활용 구역을 정하여 지역과 일체가 되어 빈집을 활용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점가의 셔터거리화가 진척되고 있어 시정촌과 마을만들기 연계협정을 하여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빈집을 활용한 예술 행사 '나라·마치야의 예술제 HANARART'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 지역에 있는 전통적 마을풍경에 대해, 관광도 포함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함에 있어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갈까를 현재적 시점이 아니라 미래적 시점으로 전환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활장소로서의 마을 모습을 유지해 가면서 질 높은 새로운 관광형태를 지향하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토 강사)
- 방일 중국인 관광객은 증가경향에 있는데 이른바 '폭풍구매' 는 축소되고 스키, 민박 등과 더불어 자연이나 전통문화에 접하는 것과 콘서트 참가 등, 다양한 체험을 목적으로 한 관광이 늘고 있다.

(중국 안후이성)
- 지역에서 사람의 유출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쉽지만 인구가 집중해 있는 대도시도 포함해서 지역의 역할이 시대와 더불어 변화해 가고 있어 자기 지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포착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토 강사)
- 일본 전국에서 사람, 물건, 일자리를 서로 빼앗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확보해 갈지가 행정의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다.

(일본 가시하라시)

- 교토·오사카로의 교통편이 좋으나 당일치기 여행객이 많다는 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과제로 되어 있어 현재 호텔 유지, 문화행사 개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근린 도시와의 연계도 긴밀히 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 자신들의 지역에 국한된 생각으로는 매력창조에 있어서도 당연히 한계에 부딪힌다. 다른 지역의 매력을 살림으로써 자기 지역의 가치를 살려가려는 개방적인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지역으로의 인적 흐름을 낚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토 강사)

(강사총괄 코멘트)



물건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여도 진정 풍요로운 지역만들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마을만들기’와 ‘관광’을 연계시킨 복안적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다.

관광에는 ‘안다·본다·접한다·느낀다·이어진다’라는 5가지 단어가 있다. ‘안다’ ‘본다’라는 종래의 관광 홍보 활동에 더하여 ‘접한다’, ‘느낀다’, ‘이어진다’와 같은 3가지 스텝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몇번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목표로 지역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향해 가는 것이 앞으로 관광의 자세가 될 것이다.

또한, 자기 지역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개방되어 이어진다’는 방법을 의식하여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매력과 더불어 그 지역민들이 방문자들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후의 관광 수요를 환기시켜 새로운 흐름도 창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력과 문화력을 향상시켜 긍지 넘치는 ‘일류 지역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찌기 일본의 중심지였던 나라 지역에는 아시아로부터 다양한 지혜와 기술이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왔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학습하여 이곳에 모인 각국의 지방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그 기술과 문화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라는 틀 안에서 연계하여 보전해 갈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 보고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는 일은 실제로는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해 가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확실한 미래는 그리운 과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교육이다. 글로벌적 인관관계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기를 고대해 본다.





실무자 토의 테마2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안후이성 쑤저우시 한 국 : 충청남도 공주시 배 트 남 : 푸토성 일 본 : 야마가타현, 나가노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나라현, 나라현 고세시, 나라현 고료초
강 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리저널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개요



중국 · 쑤저우시

쑤저우시 최북부의 용교구는 중국 식재료의 중요 생산지로 국가의 모델지역으로도 선정되었다. 곡물, 야채, 목축, 임업의 4대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경영과 조직혁신을 모색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농산물의 잔류물 검사 합격율은 100%이고 목축에 있어서도 중대한 안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농업 모델지역을 건설하여 농업의 산업화, 특히 조직혁신과 브랜드화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안후이성이 추진하는 농업의 개혁시험구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한, 토지의 유통화를 추진하고 있어 토지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전국적으로도 앞선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6건, 신형 농업경영 주체가 이 금융개혁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 · 공주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등에 의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농업구조였기 때문에 직거래 판매 체제를 강화하여 유통, 가공판매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그린 투어리즘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로컬푸드를 지역순환시키기 위한 기반만들기는 순조롭고, 학교급식센터에 지역야채의 제공과 직거래판매소 증설 외에 공주시 특산물인 밤등을 6차 산업화하여 농산물 가공라인을 구축하였다. 또한, 젊은 농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영농클럽의 육성과 귀농, 귀촌사업, 체험농장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인구유출, 고령화, 농업 이탈에 대한 정책은 불충분하며 지역순환형 농업의 주체가 되는 생산자 단체 수나 백제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농촌 투어 등의 상품개발도 과제로 남아 있다.



베트남 · 푸토성

베트남 북부 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하는데 총면적의 약 80%가 농업용지로 인구의 약 80%가 농촌부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5년의 농업생산액은 7% 성장을 이룩하여 푸토성의 GRDP(역내총생산)의 25%에 공헌하였다. 벼농사가 축을 이루고 과일과 야채 재배도 왕성하다. 한편 농업용지는 많지만 면적이 작은 토지가 분산되어 있어 농업의 생산성, 규모, 가치, 경쟁력이 낮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환경개선 등도 과제로 되어 있다. 농업의 전반적인 재편을 비롯하여 대규모 농장의 정비, 가축부문 강화, 농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투자의 유치, 행정예 의한 관리능률향상, 근린 각 성들과 연계한 농산물 유통루트의 확대와 같은 6가지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일본 · 야마가타현

지역에 뿌리내린 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소득향상과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현의 농토 70%를 차지하는 삼림이 가진 삼림자원을 활용한 ‘야마가타 삼림 모리노믹스’ 라는 경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보조를 통해 임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감과 동시에 현 특산 목재의 안정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에 원목유통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대형 집성재 공장의 시험가동을 예정하고 있고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내 기업의 내화구조부재의 개발 등 현 특산 목재의 용도 확대와 인재육성을 위한 현립농림대학교에 임업과를 설치하였으며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젊은 인재를 청년임업사로 인정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였다.



일본 · 나가노현

신슈 특산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맛있는 신슈 후-도(풍토)’ 라는 통일된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기준으로 엄선된 것을 ‘프리미엄’, 나가노 오리지널로 전국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을 ‘오리지널’, 지역의 전통적인 것을 ‘헤리티지’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산지소(地産地消)’ 뿐만이 아니라 소비되는 것을 산출하는 ‘지소지산(地消地産)’ 시책을 개시하였다. ‘긴자 NAGANO’ 는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다’ 를 컨셉으로 개설, 정보지 ‘뜨나 구(잇는다)’ 에서는 생산자와 생산법을 소개하고 판매자와 생산자 측에는 수도권의 소비동향을 알린다는 이점도 있다. 판매를 통해 관광유치로 이어져 작년도에는 25억엔의 경제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나아가 인바운드에도 주력하여 농업체험, 수학여행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 · 와카야마현

귤, 감, 매실은 일본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과일 산출액은 전국 3위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생산인구 비율은 낮다. 또한, 농업생산소득 및 어업소득도 2000년 이후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관광객 수는 늘고 있으나 한 상점 당 판매액은 최하위에 가까워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현황을 감안하여 경관, 전통음식, 전통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시정촌도 전국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갈 수 있도록 현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난한 기후와 기존의 스포츠 시설을 홍보하여 국내외에 합숙유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어 시점을 바꿔가면서 프로젝트의 재고와 신규 제안을 모색해 갈 것이다.



일본 · 시마네현

중산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의 중심은 벼농사로 겸업 농가가 농촌을 주도해 가고 있다. 오랜 기간 취락별로 농업기계, 공동 보유와 농지, 수원 보전을 실시하는 취락영농을 추진해 왔는데 경작포기지 회피를 위해 상속을 동반한 원활한 농지의 대차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소규모 취락 영농조직의 법인화와 그것을 광역적으로 연결시켜 가는 광역연계조직의 육성이 중요하다. 광역연계조직으로 대형기계의 공동이용과 농산가공, 고수익 작물의 도입 등 경영의 다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 이외의 사업도 추진하여 중산간 지역의 농지와 농촌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현 내에는 8개 광역연계조직이 있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리더와 같이 인재에 의존한 요소로 생긴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시책을 확대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일본 · 나라현

농업경영에 의욕을 가진 일꾼의 육성(‘나라 식(食)과 농(農)의 매력창조 국제대학교(NAFIC)’의 개교 등), 현 특산 농축수산물의 브랜드화(인증제도 ‘나라현 프리미엄 셀렉트’의 구축 등), 식(食)과 농(農)의 정보제공(정보제공 효과가 높은 ‘홍콩 Food Expo 2016’에의 출전과 도쿄 시로가네다이에 안테나 숍과 레스토랑을 병설하는 ‘도키노 모리’의 개설 등)를 나라현 농정(農政)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또한, NAFIC와 연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룟토 오베르주 구상’을 추진함과 더불어 현 특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라 푸드 페스티벌과 지산지소의 추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충실히 실시해 감으로써 농업법인화 수, 농산물 직거래 판매소의 설치 수와 매출 등은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 경작포기지의 해소대책, 여성의 활약 추진, 나라현 야채의 생산체제 강화 및 판로개척을 모색해 갈 것이다.



일본 · 고세시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내외의 교류인구 증가가 과제다. 또한,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일꾼 부족, 농업 종사자 부족과 경작포기지화도 우려되는 점이다. 한다 쌀, 고쇼 감, 참마 등이 고세시의 특산품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도쿄와 역앞 상점가에서 ‘마르쉐’를 개최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마르쉐에서는 평소에 고세시의 농산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주민이나 시외 사람들도 참가하여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올리거나 다양한 행사를 아울러 실시함으로써 인적이 드물던 역앞 상점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흥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같은 시기에 같은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 없고 농산물이 교체되는 단경기에는 개최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상점가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 · 고료초

경작포기지를 마을이 빌려 농업에 흥미는 있지만 농지가 없는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건강(健樂)농업’, 그리고 퇴직자, 신규 취농희망자 등 폭넓은 층을 대상으로 재배법에서부터 판매까지 농업으로 수입을 얻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농업학원’과 같은 마을의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것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이 산업으로서 성립되어 생산물 유통을 통해 경제효과를 낳는 것이 마을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농업을 진흥시키려면 농지와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여 신규 취농희망자의 초기비용 경감과 판매 루트의 다양화에 유효한 시책도 검토하고 있다.

의견 교환 내용

- 학교급식에 지역의 농산품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야채 가격이 비싸 급식비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다. 어린 시절 맛있는 야채를 먹으면 그 후에도 야채를 꾸준히 먹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추진해 가고자 한다.
(일본 나라현)
- 작년부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공주시)
- 도쿄 긴자의 안테나 슝의 유지비는 매출로부터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발신하는 역할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현내에 달한다는 생각 하에 전개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 수도권 분들에게 현산 농산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안테나 슝에 레스토랑을 병설하여 실제로 드셔보시는 것으로 인해 판로확대로 연결시키고 싶다.
(일본 나라현)
- 도쿄 긴자의 안테나 슝에서는 신청으로 인해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 등 기준을 충족시킨 것을 출하한다. 몇 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것은 제외시켜, 왜 팔리지 않았는지를 피드백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의욕을 높여 다시 도전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 민간 철도회사가 주최하는 '역 마르쉐' 는 평소에 사용되고 있는 전차 차량을 가게로 하여 특산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다.
(일본 고세시)
- 광역연계조직의 설립에 있어 앞으로는 행정이 주도하거나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취약별로 농업용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농지나 물을 보전해 가는 취약농업법인의 이익분배는 제공한 토지의 넓이가 아닌 노동시간에 의거한 것이 많다.
(일본 시마네현)
- 일본에서는 많은 농지의 대부분을 개인이 각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 사람 한 사람이 농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농업법인이나 기업이 개인의 농지를 빌려 하나의 토지로서 특정인에게 임대하고 경작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즉, 농지의 가치가 낮아 단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싸게 빌리는 것으로 인해 농지 소유자는 약간의 임대 수입을 벌 수 있게 되고,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은 그 곳에서 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없으면 농업의 수익은 증가하지 않고 농산물은 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사용해 온 농지가 점점 방치되고 있는 등, 경작 포기 문제가 심각하다.
(모타니강사)
- 중국에서도 경작포기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토지는 농업합작사 또는 대규모 농가에 유입시켜 가고 그 토지 조건이 나쁜 경우에는 다른 농작물을 심음으로써 토지를 회복시키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 쑤저우시)
- 베트남에서 토지는 나라의 소유이며 개인은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3년간 방기한 토지는 강제적으로 회수되어 타인에게 인수된다. 푸토성의 과제는 농업에서 젊은이들이 멀어지는 것이다.
(베트남 푸토성)

○ 농지가 넓더라도 고부가가치의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한 농업 생산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농지가 좁더라도 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 재배에 주력하고 있는 곳의 농업생산액은 높다. 한중일과 베트남을 넘어서서 농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입은 별로 높아지지 않으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관광진흥을 위해 이것을 지키겠다는 기개로 옛부터 전해내려온 계단식 논을 소중히 가꾸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타니강사)

○ 우리에게 있어 하이테크놀로지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행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꼭 활용해 나가고 싶다.

(베트남 푸토성)

○ 취농 지원을 목적으로 야간강의와 농지 실습, 직판소에서의 판매 등 국가와 광역자치체의 시책의 틈을 메우는 농업학원을 마을에서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거리낌없는 지원이 된다.

(일본 고료초)

○ 한국에서도 퇴직 후, 취농과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농수산대학이 있어 귀농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체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공주시)

○ 일본과 같이, 농지가 세분화되고 재산이 맞지 않는 농지일지라도 예를 들어, 퇴직자가 자신이 먹을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해 농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게 된다. 그 중에서는 퇴직후 전문적인 농가로서 성공한 사람도 있으며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건강과 생활의 양식, 제 2의 인생에 충실히 임할 수 있으며 실은,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된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농업의 역할을 보게 되었다.

(모타니강사)

(강사총괄 코멘트)



이 테마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농업규모에 있어 작을지도 모르지만 과일, 야채, 고기 등 모두를 포함한 새로운 농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즉, 고부가가치의 집약형 원에 농업 등에 임하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편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대농업지대에서 각 나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세계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지방 정부로 모여주셨다. 전혀 다른 농업 형태와 토지 제도를 취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공통된 과제로 인해 모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곳도 동일하다는 것에 놀랐다.

농업의 경쟁은 결코 쟁탈이 아니다. 보다 비싼 가격의 좋은 물건을 만들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는 것은, 제로 섬 경쟁이 아니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경쟁인 것이다. 국가가 풍요롭게 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나 전자제품 보다는 안전하고 맛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농업 전체의 수익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다시 한번 아시아 전체의 농업 활성화를 도모해 주셨으면 한다. 농업은 공업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머지 않아 선진국에 농업 중심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실무자 토의 **테마3 「저출산 대책의 추진」**

참가 지방정부	<p>중 국 : 산시성 시안시</p> <p>인도네시아 : 욕야카르타 특별주</p> <p>한 국 : 경기도, 경상북도</p> <p>일 본 : 후쿠시마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교토부,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현 덴리시, 나라현 이카루가초</p>
강 사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리저널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개요



중국 · 시안시

저출산의 요인으로서는 ‘한 자녀 정책’ 과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만혼화를 들 수 있다. 인구를 장기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 가기 위한 대책으로 출생률을 1.8 전후까지 올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출산등록제도를 심사제에서 스스로 출생계획에 기초한 신고제로 완화함과 동시에 출산 전후 휴가를 잘 활용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정비하였다. 또한, 농촌부에서의 출산무료화와 도시부에서의 의료비 보조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심신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도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의료와 간병의 연계를 도모하여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거노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 자녀 정책의 완화에 따른 교육과 위생 등의 공공자원 공급부족과 한 자녀의 부모 간병 부담이 과제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 욕야카르타 특별주

욕야카르타 특별주의 출생률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서서히 상승 추세에 있으며 다른 참가지방정부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대학이 집중된 ‘학생의 거리’ 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어 10~24세 인구는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출생률을 감소시킬까 하는 과제에 부딪혀 있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계획세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사회 교육에 힘쓰으로써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을 올려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 · 경기도

경기도는 젊은이들의 유입이 많은 활기 넘치는 지역이다. 그러나 출생률은 10년 연속 저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예산의 90% 이상은 보육비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현재는 젊은이의 고용문제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만혼, 비혼 대책으로 그 경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근년 저출산 대책 관계 부서 간 논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출산장려대책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의 주거 지원을 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취업 중심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유지, 자산형성을 통해 장래계획의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일하는 통장'이라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업문화에서 보다 가족들을 고려한 경영이 될 수 있는 컨설팅과 인증제도를 추진하며 아울러 젊은 세대에게 가족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는 등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한국 ·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는 어린이 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보육시설 수 및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어린이는 누구나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부모는 안심하고 어린이를 시설에 맡겨 육아 및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지원비용으로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보육료의 지원과 보육원(어린이집)에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가정육아수당의 지급 등을 실시하는 외에 국공립 보육원의 확충과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지원 등 보육 인프라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보육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허위 취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 후쿠시마현

후쿠시마현은, 합계특수출생률이 동일본 대지진 전을 웃돌고 있지만 젊은 여성인구의 감소와 평균 초혼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출생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력 저하로 인해 젊은이들의 취업이 불안정하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이직률이 높다. 현민 의식조사에서는 출산과 육아지원으로서 출산과 육아를 상담할 수 있는 환경과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에서는 '빈틈없는 결혼, 출산, 육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40년에는 현민 희망 출생률인 2.16명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남을 '추천하는 사람'의 양성과 '후쿠시마 결혼·육아 지원센터'의 설치, 특정 불임치료의 보조 등을 추진하는 외에 출산 후의 육아상담 및 조산부의 보살핌 등 각종 지원, '이쿠보스(자녀 양육 중인 부하를 응원하는 상사)'의 보급 및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후쿠이현

후쿠이현의 여성 취업율, 맞벌이율, 3세대 동거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어린이집 대기아동도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애미혼률도 남녀 모두 전국적으로 봐도 낮은 수준에 있다. 현에서는 현재, '육아행복률 일본 제일' '결혼응원 일본 제일'을 지향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0세 육아휴업 응원기업 장려금, 후쿠이 자녀 응원금부금, 육아모델기업의 인정, 육아 마이스터에 의한 상담과 시간제 보육과 같은 지원, 조부모의 육아휴가 등 취득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외에, '세 자녀 응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결혼지원으로서 '메이와쿠 아리가타 만남추선'의 결혼상담원제도가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제 3자 출생비율이 증가하여, 육아휴가 취득자의 90%이상이 1년 이상의 육아휴가를 취득하고 있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 야마나시현

인구감소대책을 현 정책의 최종요과제로 자리매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취업을 계기로 근접한 도쿄권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인해 출생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안심하고 결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혼을 희망하는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을 지원하는 ‘야마나시 만남 지원센터’의 운영, 불임치료비 보조, 육아상담, 출산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전후 도움센터’의 운영, 제 2자 이후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 무료화, 연장보육과 질병아동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대기아동 재료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대책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을 현대에 머물게 하는 사회감소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감소, 자연감소 양 측면에서 인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에서는 시·정(마을)별로 출생률에의 영향요인을 파악, 분석하여 작성한 ‘후지노쿠니 저출산 돌파전략의 나침반’을 활용하여 시·정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시책을 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나침반은 자치체의 선구적 활동사례로서 국가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만남에서 육아까지를 읊은 단가 대회를 실시하여, ‘육아는 존엄한 일’이라는 이념을 침투시킴과 동시에, 기업 등을 ‘후지산 아이 응원부대’로서 등록시킴으로서, 결혼기운과 사회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기운을 조성하는 것 외에, 불임치료비 조성을 충실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만남에서 육아까지의 빈틈없는 지원을 현이 앞장서 실시함으로써, 몇 가지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어 합계특수출생률 2.0의 달성이 머지않은 시·정들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 교토부

교토부의 합계특수출생률은 낮다. 그 원인으로서는 미혼화, 만혼화, 만산화가 있다.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으나 못하는 이유로서 경제적인 요인과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대책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용대책과 고용형태의 개혁 등도 포함하여 결혼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결혼지원으로서 ‘교토 결혼지원센터’의 설립과 ‘결혼활동 마스터’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외에 육아지원으로서 모자보건과 복지시책을 일괄 지원하는 ‘교토 육아피아 서포트센터’의 설치, 제 3자 이후의 유아교육과 보육료 무상화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추진하는 기업의 인증제도를 창설하여 고용형태의 재고도 추진하고 있다. ‘부민회의’도 창설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 가고자 한다.



일본 · 도쿠시마현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육아에의 꿈이 이루어져 평생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결혼지원으로서 ‘도쿠시마 결혼서포트센터’ 설치와 ‘아와(도쿠시마) 인연맺기 서포터’의 양성,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결혼지원을 실시하는 시정촌을 지원하는 외에 이주, 정주도 염두에 두고 대도시권의 여성을 도쿠시마에 초청하여 만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 출산 지원으로서는 출산 전후의 조산부의 보살핌,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플랜 교육, 불임치료 보조와 육아지원으로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의료비 보조, 소득에 따른 제 3자 이후의 보육료 및 방과후 교실의 이용료 무료화, 어린이집과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비촉진과 보육서비스의 충실, ‘마마 재택근무자’의 양성, 육아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의 인증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가가와현

결혼에서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는 ‘육아현 가가와’의 실현을 지향한다. 만혼화의 진행과 미혼율의 상승이 출생수 감소에 영향을 줌에 따라 결혼희망자를 응원하는 시책마련으로서 ‘가가와 인연맺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매칭과 기업 등이 실시하는 결혼활동 행사의 일원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육아지원거점의 정비를 추진하는 외에도 다자녀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보육료 면제의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가맹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산산 패스포트 사업(세 자녀 가정 응원사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시정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금을 창설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미래 응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빈곤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검토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합계특수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



일본 · 나라현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혼화, 만혼화, 만산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라현에서는 ‘어린이를 낳아 키우기 좋고 어린이가 건전하게 자라는 나라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육아환경 개선과 젊은이의 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뿌리내린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나라 결혼응원단(현이 창설하여 현재는 민간이 운영)’의 홍보를 현이 담당하거나 육아가정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 육아응원단’으로서 점포를 등록하는 운동과 차세대 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육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취업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시책과 아울러 현내 시정촌이 실시하는 시책을 나라현이 뒷받침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전개해 가고자 한다.



일본 · 덴리시

2~30대에 걸쳐 인구유출이 많아 젊은 세대가 덴리시에서 출산, 육아를 하고 싶도록 할 만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육아지원의 중핵시설로서 ‘육아세대 건전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하는 제도 ‘덴리시 스타일의 네오볼라(Neuvola)’를 구축함과 동시에 출산 후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육아가 궤도에 오르기까지 산모를 도와주는 인재인 ‘출산 후 돌라(Doula)’를 나라현에서 최초로 양성한다. 또한, 지방창생활동으로서 젊은이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할로워크와 일체가 된 취업지원시설 ‘덴리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취업형태의 실현을 지향하는 상점가의 빈 점포에 대한 ‘텔레워크센터’의 개설 등,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가고 있다.



일본 · 이카루가초

육아세대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여 지역육아지원센터의 운영 및 어린이집, 가정, 지역, 관계 행정기관 등이 연계한 육아지원 네트워크의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빈집을 활용한 육아세대의 전입지원도 검토중이다. 또한, 어린이를 낳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여 일반 불임·불육치료비 지원, 임부 일반건강진단 확충 외에 임부의 치주질환 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여 어린이집 대기아동 제로의 유지, 저소득 다자녀세대에 대한 보육료 등의 경감 이외에 육아지원 앱 시스템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 3세대 동거, 근거(近居)의 지원, 여성의 창업·취업지원, 텔레워크센터의 설립, 임신에서 육아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육아세대 포괄 지원센터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의견 교환 내용

- 일본의 자치체가 결혼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젊은이의 미혼률이 올라가는 요인으로서 고용문제 외에 남녀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현실이 있다.
(마쓰다 강사)
- 가가와현의 매칭 시스템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에히메현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민간사업자에 비해 등록료가 저렴하여 부담없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칭을 희망하는 사람은 민간사업자를 이용함으로써 공존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
- 각국의 공통적인 저출산 배경으로서는 결혼할 젊은 세대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자치체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 젊은층의 고용문제가 있으며 한일 공통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각도로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각국마다 증가하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보육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
(마쓰다 강사)
- 어린이집은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는 부모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 또한,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침 이외에도 나라현 오리지널로 취학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검토도 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 야마나시현에서는 2015년부터 소득제한은 있지만 제 2자 이후의 3세 미만인 아이의 보육료 무상화를 개시하였다. 둘째를 낳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시책이다.
(일본 야마나시현)
- 일본의 어린이집은 크게 나눠 공립과 사립 인가보육원, 인가와 사립보육원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인가와 사립보육원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행정 측의 보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마쓰다 강사)
- 보육시설의 공공화(무료화)에 따라 전업주부도 포함하여 누구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아이를 향한 엄마의 애정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용시간을 단축하고 가정에서의 육아를 장려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늘어나도록 시간외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기는 시책보다도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등 부모가 역할을 분담하여 애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 경상북도)
- 육아와 간호, 자신의 질병 등의 다양한 제약을 가진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기업의 실적도 올리고 스스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남성을 '이쿠보스' 라고 하는데 시즈오카현에서는 '이쿠보스' 를 늘리기 위해 '이쿠보스' 가 활약하는 기업을 표창하여 알리거나 '이쿠보스' 를 양성하는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현)
- 경상북도에서는 야근을 하지 않는 요일과 '대디 데이' 로서 아버지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일찍 집에 돌아가 육아에 참가하는 날도 설정하고 있다.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 경상북도)
- 초혼연령에 대하여 여성은 21세를 유지, 남성은 25세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에 비해 아직 낮지만 젊은 부부의 직업지원을 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특별주)

- 한 자녀 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출생수의 모니터 및 ‘한 자녀 가정과 두 자녀 가정의 어느 쪽이 행복한가’와 같은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둘째를 낳음으로써 부부 또는 가정 내 관계도 좋아져 가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등, 어린이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시안시)

- 자와인에게는 ‘밥을 먹든 먹지 못하든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자녀가 많으면 신의 은혜도 많이 입을 수 있다’ 는 속담이 있듯이 가족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또한, 2006년의 지진재해 시에도 욱야카르타주의 출생률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은 지방정부가 가설주택에 ‘사랑의 방’ 을 마련하여 부부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주민에 대한 카운셀링 담당자의 육성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특별주)

(강사총괄 코멘트)



참가지방정부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라에서는 저출산화가 진척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혼외자가 일반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는 의식이 뿌리깊어 결혼하는 젊은이의 감소가 출생률 저하로 직결된다. 그러한 미혼화, 만혼화의 배경으로서는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현실과 더불어 젊은층의 고용상황 악화가 있다는 사실이 일본과 한국의 지방정부로부터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저출산 대책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한편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책임이 중시되는 문화권임을 염두에 두고 일과 육아의 적절한 양립 환경을 정비하여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가사와 육아의 역할이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육아 참가 등 앞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아갈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저출산화는 일률적으로는 자연감소 문제지만 자연감소가 일어나는 배경으로는 지역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린다는 사회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시급하다.

한편, 가족의 유대감을 소중히 하는 아시아권 특유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요소로서 생각한다면, 3세대 동거와 이웃의 육아지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해 맞벌이가 가능해지고,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등의 저출산 대책에 활용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아시아의 출생률 추이에 깊이 관여한다고 할 것이다.



기 조 강 연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한다」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학 명예교수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세계 성장의 중심에 있으며, 이대로 성장하면 세계에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목하고 싶다. 이 지역은 유럽과 달리,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으로 인한 혼란이 없으며 난민 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인 긴장감과 민족주의의 고취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충돌을 피한다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크다.

세계 부자나라 순위를 보면 상위의 대부분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인구 1,000만명이하의 소국이다. 왜 소국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현재 큰 전쟁이 없고 인구와 영토의 크기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대국은 이익과 손해가 다른 지역들이 존재하여, 하나로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모순이 있다. 소국은 효율적인 경제의 운영과 기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들 소국의 장점은 도시, 지방에서도 적용되며 바로 21세기는 「도시와 지방의 시대」 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제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이지만, 그 기초는 지역이 아닌 국가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실제 경험보다 상상의 민족주의가 강력하여 국가간의 제후에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간, 도시간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 외교의 기본은 인간 관계이며 구체적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안정감 있는 외교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도 지방간, 도시간의 관계는 중요하다. 더욱이, 이 회합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에서는 공통적인 과제를 많이 안고 있으며, 한 지방정부의 문제 해결의 성과가 타국의 지방정부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간에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대도시 특유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가 집중하면 교통체증 등, 도시의 인프라 정비가 첫 번째 문제로 손꼽힌다. 예전에 태국에서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에너지손실, 인적시간 손실문제 등이 있었지만 대중 교통기관의 발전으로 많이 해결되었다.

JICA (일본 국제협력사업단) 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도움이 되고자 필리핀 마닐라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도 대중 교통기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면 물이 부족하게 된다. 예를 들면, JICA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기적」 으로 불리우는 큰 상수도 사업을 완성시켰다.

JICA의 일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지원이다. 참가 국가들이 모인 오늘 이 자리에서 JICA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소개하고 싶다. 중국의 안후이성에서는 대기환경개선, 물환경정비로 하수처리와 도시폐기물처리 사업, 시안시에서는 환경 정비로 하수처리 사업을 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에서는 대학정비, 서자바주에서는 치타룸강 상류의 유역홍수대책, 인드라마유 석탄화력발전의 효율가동, 간호실천능력의 향상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육야카르타 특별주에서는 관광자원정비의 명목으로 보로부두르·프람바난 사적공원의 건설을 돕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산사태재해 및 수해로 인한 재해 제연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후에시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특히, 하수대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다이지 대불 개안식에 베트남 중부의 승려가 참여한 유래도 있는 인연을 넓혀가고 싶다.

현대의 국제협력은 국가 상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와 지자체가 대상이다. JICA도 일본 국내 센터를 통하여 일본 지방정부에 국제협력을 부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참가하여 해외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JICA의 국제 협력은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현지와 일본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국제 협력을 하고 있다.

JICA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보이는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수장 토의 테마1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안후이성, 쓰촨성 청두시, 산둥성 동잉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산시 베 트 남 : 투아티엔후에성, 투아티엔 후에성 후에시 일 본 : 미에현, 나라현, 미야기현 다가조시, 나라현 가시하라시
	강 사 고토 겐이치 (주) 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사장

강사 스피치



고토 겐이치 (주) 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사장

지방활성화의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지역의 매력이란 ‘편리함’ 이나 관광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편리함보다도 개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개성을 어떻게 살려갈지 지금까지는 마을 만들기를 실천함에 있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

개성이 강할수록 보다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개성의 정도가 지역의 매력 그 자체이며 그것을 살려감으로써 지역 외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사람들은 일부러 그곳을 방문한다. 그것을 주민들 자신이 이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지역 개성 만들기가 시작된다. 미쉐린가이드의 별점을 가진 샵이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시골이면 일수록 거기에 글로벌적인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서 지역적이며 글로벌적이기도 한 시점을 잊지 않고 의식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당연한 것’ 을 보는 주민들의 시점이 점차 변해간다.

지금까지 ‘차이’ 를 자신들의 개성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을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장소적인 콤플렉스로 이어졌는데 지역주민 자신이 지역의 ‘차이’ 는 ‘개성’ 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콤플렉스로 여겼던 ‘차이’ 를 ‘개성’ 으로서 살릴 수 있게 된다. 이 ‘장소적인 콤플렉스’ 와 대치하는 것 즉 ‘차이’ 를 솔직히 받아들여 거기에 있는 글로벌적 가치를 연마해 갈 수 있다면 앞으로 그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의 개성을 살린 지역 만들기에는 ‘공간과 시간을 디자인한다’ 는 개념으로 지역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주도인 경우 평등하게 돈을 써야 한다는 구속이 있어 개성이 강한 매력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률적으로 하드면을 정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개성에 맞는 조절도 필요하다. 적합한 센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지역주민은 지역의 개성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고 지역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우연히 남아있던 오래된 마을풍경을 살린 관광사레와 공장을 활용하여 산업관광으로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데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 갈지를 지역주민들이 판단하여 지역에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 관광진흥으로 이어진다.

아무 것도 ‘없다’ 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 는 것을 홍보해 간다. 예를 들면 우리 도카치라는 지역에는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데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이 있다. 그러한 것을 살려 거기서 밖에 보낼 수 없는 시간적 매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방문객을 늘려갈 수 있었다.

지역의 진정한 보물은 실은 자신들 주변에 있다. 언제나 보는 당연한 풍경이 관광자원이 되고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관광자원이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관광의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교통기관이나 호텔과 같은 관광산업의 직접적인 스테이크 홀더 이외의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지역관광의 전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방의 경관을 즐기게 하는 ‘장소 놀이’ 와 경관이 좋은 시기를 살리는 ‘장소 제철’ 과 같은 시점을 살려 센스있게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그때 그 장소에서 밖에 맞볼 수 없는 가치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일부러 ‘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것을 주민자신이 관여하는 활동으로 추진해 감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준과 의식수준의 변혁, 향상으로 이어져 간다.

지방이 정말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양’ 보다도 ‘질’ 이다. 지역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가치’ 를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집객이 가능해진다. 거기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행정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지방정부가 참가하는 이 회합이 축이 되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와 개성을 점차 연계시켜 ‘동아시아 가도 프로젝트’ 와 같은 형태로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지금까지의 세계관과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한 전개에 기대를 걸고 싶다.

수장토의 참가자 여러분



중국 · 안후이성
WANG, Xin
안후이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
주임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Ahmad Heryawan
지사



중국 · 청두시
GAO, Jianjun
청두시정부 부비서장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Mohd Nasir Sheikh
Salim
말라카 역사도시위원회 자지체담
당장관



중국 · 둥잉시
HAN, Wei
둥잉시 마을만들기 기획국
부국장



한국 · 충청남도
YOON, Jong In
행정부지사



한국 · 서산시
SHIN, Kweon Beom
해양수산과 과장



일본 · 나라현
호리우치 히데노리
마을만들기 추진국 차장



베트남 · 투아티엔후에성
NGUYEN Van Cao
성인민위원회 위원장



일본 · 다가조시
기쿠치 켄지로
시장



베트남 · 후에시
CHAU Van Loc
후에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일본 · 가시하라시
마스타니 히토시
생애학습부 부장



일본 · 미에현
요코타 코이치
고용경제부 부부장



일본 · 나라현 의회
고이즈미 요네조
부의장



일본 · 나라현
마쓰타니 유키카즈
부지사

의견 교환 내용

1.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1) 개성있는 지역의 매력(=가치) 재고

- 후에시는 유형·무형을 포함하여 수많은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하면서 관광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방대한 자금과 인재가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를 비롯하여 각 방면의 지원이 시급하다.
(베트남 후에시)
- 지역주민은 관광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양식이나 윤리적인 면도 매우 우수하다. 모든 역사적인 건조물과 장소가 포르투갈에 의한 통치 시대의 모습을 지금에 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 서자바주는 유럽의 관광객들로부터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 ‘신들도 그 아름다움에 미소짓는다’ 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곳으로 100개를 넘는 문화를 가진 주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관광에 살려 가려 한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 역사깊은 취락들이 엮어내는 경관이 보전되어 있는 마을을 산책하고 마을의 역사와 옛 풍경을 아는 것으로써 그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해 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인 이마이초에서는 지역의 풍토에 맞춰 발전한 마치야 등의 건조물을 보존 수리하고 경관의 보전 및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의 양립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 가시하라시)
- 연간 1,000만명이 이세신궁을 참배하로 온다. 도중에 참배자들을 접대하는 ‘오하라이마치’ 라고 불리는 에도시대의 풍경이 재현된 마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 또한, 인근에는 민간자원으로 설립된 ‘오카게 요코초’ 도 정비되어 미에현의 전통적인 식사와 풍물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을풍경 정비와 아울러 서비스면을 충실히 한 지역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미에현)
- 관광촉진에도 거금을 들여 거대한 건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눈 앞에 있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성을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여행을 지향하고 있다.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2) 역사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융합

- 말라카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 옛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것을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융합시켜 갈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국가이며 각자 다른문화를 가진 가운데 공통의 미래를 향해 똑같은 시나리오를 그려 나아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센스가 중요하다. 역사적인 것과 경관 등도 포함하여 그 마을의 이미지를 정확히 만들어 내어 그에 맞춰 전체를 디자인해 가면, 마을의 이미지를 깨지 않고 변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새로운 것이 그 속에 있는 오래된 것의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다.
(고토강사)

(3) 다양한 마을 만들기 시도

- 젊은이의 대도시권에서의 이주축진책으로서 먼저 관광도 포함하여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그 후 시험삼아 잠시라도 나라에 거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에서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착오를 통해 일과 육아를 하기에 좋은 환경 만들기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일본 나라현)
- 도시와 지방이 균형있게 역할 분담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양쪽에 관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즐기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나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토강사)
- 젊은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고용이 중요하다. 더구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공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 작은 마을이라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있는데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이 끝난 후인 밤 시간을 어떻게 즐길지 매우 중요하다.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게나 멋진 바가 있는 등의 요소를 전략적으로 도입한 지역 만들기를 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토강사)
- 국제적인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을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전통문화를 보전해 갈지가 중요하다. (중국 안후이성)
- 마을 만들기에 있어 젊은이의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관련이 있듯이 이번 세 가지 테마는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 충청남도)

2. 연계를 통한 마을 만들기

- 하나의 시와 현 단위로만 생각하면 그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살려가면서 큰 지역에서 하나의 산업을 구축하여 지역 만들기를 실시해 가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일본 미에현)
- 나라현에서는 ‘나라 모델’로서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시정촌과 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촌과 현이 대등한 형태로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나라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현과 시정촌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계협정을 체결하여 구상책정부터 함께 검토하고 역과 신사 등의 거점을 중심으로 협동하여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마토 고오리야마시에서는 연계협정에 기초하여 지역의 품정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컨셉으로 역 앞 공간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의회)
- 다가조시의 우호도시인 다자이후시는 한국의 부여군과 역사적 우호관계에 있으며 아오모리현의 하치노헤 시에서 백제의 ‘백강전투’에 출병했던 사람이 있는 등 동아시아에는 역사적 축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한 역사적 관계도 흥미로운 마을 만들기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다가조시)

○ 지역진흥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치체에서 고장 자동차 번호판 ‘아스카 번호판’ 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자치체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어 모든 주변 자치체의 양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지역별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일본 가시하라시)

3.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의식을 회복시켜 주민 스스로에게 ‘지역을 관광자원화하겠다’ 는 의지를 어떻게 심어줄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한국 충청남도)

○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가려면 주민의 의식향상이 중요하다. 의식향상을 위해서는 수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방향성을 정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민들의 의식향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잠재성을 더욱 살린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

(베트남 후에시)

○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개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끌어올려 지역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체계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는 비용을 들여 마을의 활력을 유지시켜 왔으나 돈으로 형성된 마을은 반드시 노후화하여 또다시 자금이 필요해진다. 한편 사람에게 활기를 불어 넣으면 사람은 성장하고 마을 만들기도 유지된다.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다.

(일본 나라현의회)

○ 자연을 소중히 하고 지역의 자원을 살려 자연의 흐름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간을 들여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청두시)

4. 마을 만들기에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

○ 서산시에는 세계 5대 간척지 중 하나인 “가로림만” 이 있으며 국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는 어민과 하나가 되어 개발보다는 이 지역을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어민들의 소득증가를 목표로 관광을 포함한 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서산시)

○ 수산업 개척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수질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적절한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가능한 한 관리를 지역민들에게 하게 하여 자연보호로 이어가고자 한다.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 관광과 지역 만들기에 있어 환경이라는 시점을 잊기 쉽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과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들이 직면하는 문제로 충청남도에서도 필요에 따라 비용을 들여 공기를 정화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해 갈 계획이다.

(한국 충청남도)

○ 서자바주에는 많은 수원지가 있는데 마시는 물로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상수도원이기도 한 서자바주에서 가장 긴 찌따름강은 주민들이 강에 쓰레기를 버려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생활의 영위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역 만들기를 고려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 동양시는 역사는 짧은 도시지만 도시와 자연과의 공생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주변에 펼쳐지는 습지대를 보호하면서 도시와 습지가 잘 융합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의 삼림율도 높고 희귀 조류도 다수 날아오고 있다. 또한, 도시 기능의 분산을 도모하여 마을 중앙부에 생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중국 동양시)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 등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국가를 초월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서산시)



총괄



고토 겐이치 (주) 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사장

‘차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같은 부분을 살리려고 한다면 경쟁이 심해져 승부와 우열이라는 상하관계밖에 생기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 자기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픈하여 연계’ 시킴으로써 횡적 관계가 생겨 지역별 매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차이를 전략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시켜 가는 것은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마을 만들기 활동은 진지하게 임하면 임할 수록 너무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는 기쁘게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 만들기 안에도 ‘즐긴다’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자신과 상관없는 곳은 소중히 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자신과 상관관계가 있는 곳은 소중히 한다. 그렇다면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도 포함하여 얼마나 자연경관 지역을 자신과 상관있는 장소로 할지를 생각해 본다. 산과 강에 좀더 접하고 놀이를 통해 각자에게 있어 소중한 장소를 확대시켜 간다. 그를 위한 체계를 행정이 뒷받침하고 민간도 연계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관여해 갈 수 있는 장소 만들기를 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에는 5가지 스텝 ‘안다, 본다, 접한다, 느낀다, 이어진다’가 있다. 5번째 스텝인 ‘이어진다’를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 사람들이 일꾼으로서 참가하는 장을 마련하려면 관민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과제 선진국으로 불려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경험을 해 왔는데 거기에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의 이해와 성장 에너지가 가미되면 새로운 시점에서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고 또한 동아시아 각지에서도 이상적이고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나라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과 나라현의 지사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현 관계자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나라현은 여러분들께 이미 뜻 깊은 곳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지역을 소중한 내면의 장소로서 자랑할 수 있는 관계를 동아시아 지방정부 안에서 축적해 갈 수 있다면 진정으로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멋진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수장 토의 테마2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안후이성 쑤저우시 한 국 : 충청남도 공주시 배 트 남 : 푸토성 일 본 : 나가노현, 시마네현, 나라현, 니가타현 니가타시, 나라현 나라시, 나라현 고세시, 나라현 아스카무라, 나라현 고료초
강 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강사 스피치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일본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자리매김을 GDP로 보면 70년전은 5할을 차지했었는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현재는 불과 1%가 되어 더 이상 농업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일본 수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등 대부분이 공장 등에서 제조된 것으로 농산물에서 유래하는 것은 0.6%에 머물고 있다. 중국도 현저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일본은 확실히 제조업에 비중을 둔 나라이나 실제로는 비교적 새로운 화산에 의해 토지가 비옥하고 강수량도 많아 세계적으로 봐도 특히 농업에 적합한 나라다. 일본 농업의 재작년 매출액은 8.4조엔으로 농업종사자는 192만명이었다.

예를 들면 한 회사만으로 11.2조엔의 매출이 있었고, 7만명의 사원을 고용하는 토요타 자동차와 비교하면 생산성과 개개인의 수입도 낮기 때문에 산업으로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아주 적은 매출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전체에 고용의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마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업종사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작농이며 스스로 재배한 농작물로 생활비를 줄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고 있는 분의 1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나라현에서는 무려 40%에 이른다.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소리도 있지만 그들은 즐겁게 자신들이 먹을 만큼의 농사를 짓고 때로는 시장에 내다 팔아 수입을 올리며 생활하고 있다. 일본의 3분의 2가 산인데 나라현은 8할이 산이다. 꽤나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빈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UN의 인구예측을 보는 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20~50년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더 이상 농지를 없애 농업을 포기하면 토지는 더욱 남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숲이나 농지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최성기의 8,700만명에서 7,000만명대로 되고 앞으로도 약 1%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1명당 경제규모가 1년에 1%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일본이 쇠퇴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사람 한사람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있다. 단, 국가 전체로서는 인구가 감소되어 성장이 멈추고 토지가 남아도는 상황도 고려하여 농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일본과 규모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베트남도 중국에 전후하여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본이 걸은 길을 다른 동아시아 각국들도 걷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을 살리기 바란다.

이러한 인구감소 속에서 일본의 농업을 생각할 때 토지를 잇달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농지로 되돌려 자급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은 고령이기 때문에 농업의 매출은 거의 없고 GDP에 차지하는 비율도 극히 적은 가운데 어떻게 농업을 지켜갈 것인가. 거기서 1차(농업)×2차(공업)×3차(상업)의 6차 산업, 즉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우수한 기술력으로 가공하는 등, 산지의 브랜드화를 진행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가 농산물과 가공한 제품을 이른바 파머스 마켓 등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관광객을 자택에 숙박시켜 농작업 체험을 하게 하는 농가민박, 농업종사자 스스로 오너가 되어 지역의 식자재를 사용한 농가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등 농가수입을 늘려가며 농지를 힘들게 지켜가고 있다. 그밖에도 노인들이 기른 야채를 복지시설에 가져가 그 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싸고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야채값 대신에 복지시설의 이용권과 교환하는 사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부지 내에 농지를 만들어 시민농원화 하는 활동, 시골형 주택 등 농업을 도시주민들의 생활에 살려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렇듯 농업은 가령 금액이 적더라도 매우 다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도시와 연계를 함으로써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수장토의 참가자 여러분



중국 · 쑤저우시
MA, Hongzhong
쑤저우시정협위원회 부주석
쑤저우시인민정부 비서장



일본 · 나가노현
기타하라 토미히로
농정부 부장



한국 · 공주시
KIM, Sang Tae
농촌진흥과 과장



일본 · 시마네현
사카모토 노부히사
농림수산부 부장



베트남 · 푸토성
BUI Van Quang
푸토성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장



일본 · 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일본 · 나라현
후쿠타니 타케오
농림부 부장



일본 · 아스카무라
모리카와 유이치
촌장



일본 · 니가타시
시노다 아키라
시장



일본 · 고료초
야마무라 요시유키
정장



일본 · 나라시
나카가와 겐
시장



일본 · 나라현 의회
마츠오 이사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일본 · 고세시
히가시가와 유타카
시장

의견 교환 내용

1. 농업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방법

(1) 특산품을 활용한 농업의 활성화

○ 도시와 농지의 복합도시인 공주시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농촌에서도 농가세대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밤막걸리를 개발하거나 ‘탄닌성분’ 이 많이 포함된 밤 껍질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여 ‘밤 소고기’ 를 개발하는 등 6차 산업화를 겨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임산물의 발전을 위해 가공산업교육도 실시하면서 버섯 등 새로운 분야에도 착목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한계도 실감하고 있다.

(한국 공주시)

○ 현재 젊은이들의 농업 이탈이 심각하다. 우리 농업은 분산된 토지에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앞으로는 차와 같은 특산물의 대규모 농업생산과 농산물 가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일본 등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유치하여 계란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

(베트남 푸토성)

(2) 지역의 브랜드력을 살린 농업의 전개

○ ‘맛있는 신슈 후-도(풍토)’ 라는 통일 브랜드가 지역에서 생겼다. 우수함을 지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풍토가 낳은 먹거리의 우수함에 대하여 스토리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내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66%이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일본 전국으로 홍보해 가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지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일본 나가노현)

○ 고세시는 고대 한국에서 주철기술이 도입되어 호족들이 선진적 도시를 꾸렸던 곳으로 시마네현과 같은 계단식 밭 풍경에 가깝다. 또한, 한국과 깊은 연관을 가진 ‘곤고잔(金剛山)’ 이라는 산도 있어 그러한 잠재적 능력을 살려 지역의 브랜드라는 형태로 농업에 연관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고세시)

○ 프랑스의 와인관리제도에 준하여 일본에서 최초인 ‘나가노현 원산지 호칭관리제도’ 를 마련함으로써 나가노현의 ‘맛있는 신슈 후-도(풍토)’ 브랜드에서 질 좋은 와인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3) 판로확대 및 소비확대를 위한 전략

○ 시민의 구매력을 최대화함으로써 지역의 농업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또한, 시내의 모든 중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내에서 생산된 쌀로 마련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게 하기 위한 직거래 판매소와 출장판매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나라시)

○ 아스카무라에는 직판소가 3개소가 있으며 네 번째 가공소가 오픈되었다. 1호점인 ‘아스카 유메 판매소’ 는 면적은 작지만 3억엔 정도의 매출을 내었으며 마을 대부분의 농가에서 참가하고 있다. 아스카무라의 농업 조생산액 중 절반 이상이 직판소에서 매출이다. 또한, 직판소에 가공장을 병설함으로써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와 식사를 제공하는 점포도 생기고 있다. 행정기관이 준비를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동해 가고 있다.

(일본 아스카무라)

- 국내에서는 도쿄의 마켓이 식재료의 질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도쿄에 안테나 샵과 안테나 레스토랑을 출점하여 나라현 식재료의 맛을 입맛이 까다로운 도쿄 시민들에게 어필함으로써 도쿄에서의 평을 높이기 위한 승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 생산자도 마켓의 감각을 바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현내의 직판소의 가격이 소비자의 입맛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하여 맛이 떨어지면 잘 안 팔린다. 이렇듯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승부를 걸 기회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며 생산자의 마켓 감각도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일본 나라현)

- 소비자측에서 생각한 '지소지산' 즉 현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지역 외 생산 식재료를 조금이라도 지역 내 생산 식재료로 대체해 가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호텔, 음식점, 온천여관 등에서 현내 생산된 식재료의 소비를 추진하는 외에 6차 산업화에 관련된 쓰케모노(야채절임)와 미소(된장) 등의 원재료는 대부분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현내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규모가 큰 6차 산업화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

(일본 나가노현)

(4) 다른 종류의 업종 연계에 의한 농촌진흥

- 농업전략특구의 규제완화에 따라 농용지에 3채의 농가 레스토랑을 오픈시킬 수 있었다. 모두 성황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농가 레스토랑과 식물공장, 애그리컬처파크 등을 활용하여 가스트로노미(식문화) 투어리즘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 니가타시)

- 나라현의 관광은 먹거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먹거리의 브랜드화, 먹거리의 매력을 전하는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지대에서의 차임따기체험과 지역농작물을 사용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관광협회와 연계하여 먹거리의 매력을 전하는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나라시)

- 2013년부터 시작된 홈스테이형의 민박에서는 농가에 민박하며 농가주인과 함께 식사를 만들어 함께 먹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은 농가 체험에 매우 감격하여 지금은 민박객의 절반이 해외 손님으로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가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여 농업체험도 포함시켜 아스카무라의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아스카무라의 농업은 매우 흥미로운 듯하다.

(일본 아스카무라)

- 지산지소만으로는 발전이 없고 식재료를 보다 널리 유통시키지 않으면 다양하고 풍요로운 색생활, 식문화는 정착되지 않는다. 상품을 멀리까지 유통시키려면 가공뿐만 아니라 안전인증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해진다. 풍부하게 식재료가 모이는 것은 대도시에 한정될지 모르지만 식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촌부이기 때문에 더욱 색생활이 좀더 풍요로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도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나라현)

(5) 지역의 특색을 살린 취농지원

- 나라분지를 내려다보는 고세시는 매우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이 땅의 매력을 느끼고 농업을 하고 싶어하는 시외의 젊은이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가까이 접해있다는 편리성을 살려 당일치기 농업체험 안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는 것에 시외 사람들도 협력하고 있어 한발 내딛을 수 있었다.

(일본 고세시)

- 농업학원에서는 벌이형농업에 도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젊은이의 신규 취농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양말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후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양말산업의 다른 종류의 두 업종을 잘 연결시켜 빈집 활용도 촉진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0만명을 넘는 방문객이 있는 우마미구릉공원에서는 새롭게 관광 딸기원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이 곳에서는 젊은 취농자가 일하고 있다.

(일본 고료초)

2.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활동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는 전국적으로도 높아 빠른 단계에서 6차산업화와 브랜드화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더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조직만들기를 활성화하여 마을과 취락이 연계하여 보다 큰 조직을 만들어 생산의 효율화, 경비삭감, 경영의 다각화. 새로운 6차산업품의 창출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 올해도 푸드페스티벌 ‘세페스타’가 나라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다. 나라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소비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현민들에게 지역의 식재료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염두에 두며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食)과 농(農) 양쪽을 가르치는 ‘나라 식(食)과 농(農)의 매력창조 국제대학교(NAFIC)’가 올해 개교하여 졸업생들이 경영하는 농가 레스토랑도 기대되고 있다. 농업은 취약한 산업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갈 필요가 있다.

(일본 나라현의회)

- 농업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은 공업화가 늦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교적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후, 그 지역에는 살지 않고 도시부로 유출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젊은층의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보장비용도 올라가게 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포함한 공통과제이다.

(일본 나라현)

- 20세기에는 하나의 푸드밸리(식산업의 집적지)를 만들어 일본 유수의 제과·쌀과자기업, 쌀밥기업 등이 잇달아 니가타의 논에서 탄생했다. 현재 새로운 푸드밸리로서 재구축하여 AGRICLUSTER(식과 농의 복합형 산학관 조직)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농업전략특구로 지정되어 9개의 기업그룹이 규제완화를 활용하여 농업에 참입하여 유니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6차산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가타시)

- ‘복지와 농업’ ‘교육과 농업’ 과 같이 조합시킴으로써 농업진흥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지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고세시)

- 6차산업화에 더하여 6개 분야에서 니가타의 전원자원의 힘을 총 활용하는 12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①교육(니가타현 생산 쌀밥 급식에 따른 식육과 농업체험), ②육아(유치원 등에서 가정의 야채쓰레기를 비료로 하여 야채를 기르는 운동), ③복지(농업특구에서의 장애인고용) ④보건·의료(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식 등의 추진, 농작업을 통한 마음건강증진), ⑤에너지·환경(쌀겨·연료 및 비료활용) ⑥교류(일본 최초의 레스토랑 버스를 활용한 관광진흥)의 6개 분야다. 아직 발전도상이기는 하지만 12개 요소로 전원자원을 총활용하는 이 12차 산업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일본 니가타시)

3. 지방정부 연계를 통한 시책전개의 가능성

- 공주시의 특산품인 밤은 밤막걸리를 비롯하여 빵과 과자 등 다양하게 가공되고 있다. 단, 각각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이러한 회합을 계기로 삼아 정부차원, 자치체 차원에서 지원해 가면 산업화, 국제화, 대중화도 도모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공주시)
- 쑤저우시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대운하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과수원이 있다. 이 회합에 참가하여 다른 지방 정부와 교류를 돈독히 하고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중국 쑤저우시)
- 회합에서의 논의를 통해 공통과제가 인식되어 거기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내지는 연계하는 시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 회합은 더욱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일본 나라현)
- 참가하신 지방정부 여러분들과 현과 시정촌은 각각 농업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나 더욱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나라현의회)
-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연계패턴으로는 무엇인가 없을까? 예를 들면 맛보지 않으면 각 지역의 자랑할만한 먹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식의 제전’ 과 같은 것을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이 있다면 연계하는 느낌이 생겨날 것이다. 나라에서 실시하면 일본의 지방정부는 출점하기 쉬울 것이다. 해외지방정부들도 일본에서 입수 가능한 대표 식재료와 요리, 판매회사도 있으므로 참가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 나라현)
- 나라현을 예로 들자면 전통식재료와 전통요리법 등을 테마로 한 ‘고도(古都) 온리 먹거리 제전’ 등을 개최하면 어떨까. 동아시아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행정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 및 먹거리 관계자, 민간기업 여러분들이 모여 실제로 조리법을 논의하거나 시식할 기회도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모타니 강사)



총괄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농업을 살리면서 지역 전체의 과제를 어떻게 해소해 갈지가 공통 과제다.

먼저 지역이 얼마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으로 외화를 벌고 생산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막대한 생산액을 올리는 대곡창지대라고 해도 농가 1인당 수입이 낮으면 그것을 올려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번 돈을 지역에서 회전시켜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외화를 벌어도 매출이 지역의 소비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원재료비로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많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만 지역에서 사게 되면 번 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버린다. 지역 안에서 회전되는 돈을 늘리려는 시책의 하나가 ‘지소지산(地消地産-지역의 생산물을 그 지역

에서 소비)’이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 물건을 팔면서 소비할 때는 자기 지역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모순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먼저 지역을 찾아준 관광객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는 지역의 식재료를 맛보게 하여 그 지역의 맛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객에게 지역의 것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나 학교급식에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활동은 이번에 몇몇 지방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었다.

먼저 지역부터 살리고자 하는 시책을 열심히 시행하는 지역은 인구도 감소하지 않고 경제도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장 토의 테마3 「저출산 대책의 추진」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산시성 시안시 인도네시아 : 욕야카르타 특별주 한 국 : 경기도, 경상북도 일 본 : 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현 덴리시, 나라현 이카루가초
	강 사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강사 스피치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동아시아 각국의 합계출생률의 추이를 보면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매우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공통의 문제로 삼아 함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럽에서는 아시아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단기간에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출생률의 급속한 저하 후, 미혼률 상승과 더불어 혼외 자녀가 급증하여 가족형성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2의 인구전환」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동거가 적으며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 후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혼외 자녀가 적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세대가 감소하면 출생률의 감소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시아의 특징이다. 미혼율의 상승이 출생률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원하는 자녀 수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육아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나이가 많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아니다」 등과 같은 이유에서 실제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노동력의 감소,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곤란, 투표에서의 젊은층의 영향력 저하, 지역간의 상부상조와 커뮤니티 능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되더라도 출생수·출생률의 회복뿐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일본의 출생률 저하는 대부분이 미혼화로 인해 초래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의 출생률 저하를 100%로 한 경우, 90%가 미혼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게 된 요인으로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와 임금 침체나 격차로 인한 고용문제에서 오는 결혼 의욕의 감퇴 그리고 「적당한 상대가 만나지지 않는다」와 같은 만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혼 부부간의 역할의 시점에서 보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육아를 한다」는 성별적 역할 분업이 아직까지도 강하며 아내의 취업지속률은 5년 전까지 25%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지금까지는 취업자를 중점으로 한 보육 대책과 워크&라이프 밸런스 대책이 있지만 이른바 전업주부층(일시적인 분 포함)을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는 되지 않았다. 현재 여성의 취업지속률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육아 단축근무의 의무화에 의해 계속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의 여성은 적어도 한동안은 전업주부이며, 전업주부층에 대한 재택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기 쉽도록 조성하는 것이 전체적 출생률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만혼화와 불임 문제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다.

저출산에 지역차가 생기는 요인 중의 하나는 고용이다. 완전실업률이 낮고 젊은층이 비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안정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출생률은 확연하게 높다. 두 번째 요인은 보육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긴 키, 오사카 지역은 보육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세 번째 요인은 부모나 조부모의 육아지원이 있는지. 네 번째는 결혼과 육아에 가치를 두는 지역 문화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과제에 대해서 출생률 1.8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혼자 대책으로는 청년 고용 대책과 결혼 지원이 중요하다. 보육원 대기 아동 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시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육아·교육의 비용 부담 경감, 그리고 적절한 국민부담·이용자 부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4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미혼화·만혼화에 대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젊은층을 위한 고용 대책과 결혼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증대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의 경감이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가정의 교육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취업과 육아의 양립 지원이다. 보육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친족관계가 긴밀한 나라에서는 친족의 힘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대도시의 출생률은 매우 낮아지고 저출산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도 대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어떻게 지방을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근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수장토의 참가자 여러분



중국 · 시안시
DUAN, Chongli
시안시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
부주임



한국 · 경상북도
LEE, Woo Young
여성가족정책관실 주무관



**인도네시아 ·
욕야카르타 특별주**
Ratnawati Evi Maria
인구가족계획위원회
욕야카르타실 실장



일본 · 후쿠시마현
아베 히데히로
후쿠시마현오사카사무소 소장



한국 · 경기도
KANG, Kyoung A
여성가족국 주무관



일본 · 야마나시현
고지마 토오루
종합정책부 차장



일본 · 시즈오카현

야마구치 시게노리
건강복지부 부장



일본 · 덴리시

나미카와 켄
시장



일본 · 도쿠시마현

다오 칸지
현민환경부 부장



일본 · 이카루가초

이케다 요시노리
부정장



일본 · 가가와현

구다이 유지
심의감



일본 · 나라현 의회

쓰부타니 토모시
저출산 대책,여성활약촉진특별위
원회 위원장



일본 · 나라현

후쿠니시 키요미
어린이,여성국 국장

의견 교환 내용

1. 저출산 문제의 배경과 인구감소 현황

- 전후 제 1차 베이비붐 이후, 정부는 인구 억제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배경에는 인구가 너무 증가하면 사람들이 풍족히 살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침체하고 출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촉진 정책으로의 전환이 늦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싱가포르도 동일하다. (마쓰다 강사)
- 욱야카르타 특별주는 학생들의 거리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기에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 대도시로 유출되어 버리는 게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특별주)
- 가가와현에는 대학이 적어 대학진학자의 80%가 현 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20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현 외의 대학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 내의 대학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일본 가가와현)
-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외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원하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의식에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2.5억명이 도시로 유출되어지는 문제와 더불어 중국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새로운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시안시)
-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고액의 교육비, 그리고 막대한 결혼자금 외에도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편견 등도 하나의 요인이다. (한국 경상북도)
- 한국에서는 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졸업 후의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혼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주저심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태를 풀듯이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경기도)
- 나라현에서는 오사카로 가는 교통편이 좋은 북부에 인구가 집중해 있어 남부는 과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격차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일본 나라현의회)

2. 저출산 대책

(1) 결혼지원과 결혼기운의 조성

- 도쿠시마현은 2016년도를 ‘결혼지원강화 원년’ 으로 자리매김하여 중매인을 모집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개별적으로 선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쿠시마 매리지 서포트센터’ 를 오픈시켰다. (일본 도쿠시마현)
- 결혼하여 자녀를 얻는 것은 훌륭한 일로 육아는 사회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존엄한 일이라는 것을 전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도 연계하여 ‘사랑의 노래’ 라는 노래대회를 개최하고 고등학생 세대에게도 알리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현)

(2)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

- 젊은 세대가 안정된 수입 기반을 만들지 못한 채, 육아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복지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아울러 고용 대책을 실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쓰다 강사)
- 할로워크 분국을 시청 내에 설치하여 시의 취직상담창구와 연계시키고 있다. 고용자의 요구파악과 인재매칭을 하여 시내의 대학에 정보제공을 하는 외에 기업에는 젊은층이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착 지원을 추진해 가려 한다.
(일본 덴리시)
- 나라현은 현 외 취직율이 일본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한, 현이 독자적으로 무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기업과 젊은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학교 운영과 실학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현 내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 지역기업의 구인은 있지만 그 지역의 학생은 도쿄로 나가 버리는 등 고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현이 중개 또는 연계하여 매칭페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의 취직에 따른 전출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현 내에서 도쿄로의 통근을 촉진하는 활동으로서 통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보조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나시현)
- 현 외의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들에게 우수한 현 내의 중소기업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명도를 높이는 활동을 기업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
- 어린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기업' 을 적극적으로 인증하여,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자금과 세무면에서 복수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인터넷 상에서도 홍보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수기업이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도 알림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과 취업활동을 하는 젊은이와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기도)

(3) 충실한 보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

- 북유럽 등 세계 동향에도 있듯이 보육원에 맡기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가능한 한 육아 휴직 등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점차 집단적인 보육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직장 복귀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쓰다 강사)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세대에게 지원을 추진하는 것 외에 연장보육과 휴일보육 등 다양한 취업형태에 따른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보육대책을 더욱 충실히 펼쳐 나갈 것이다.
(일본 이카루가초)
- 보육사의 자질향상과 정착지원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3단계로 올라가는 연수제도를 2015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다. 인격교육을 포함하여 취학전 교육에 있어 보육소(어린이집)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연수제도와 더불어 교육현장으로서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에 뒷받침된 고도의 기술을 겸비한 보육사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 취학 전 교육은 향후 학습 의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미국의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단지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면에서도 충실한 보육이 필요하며 그 점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 등에서도 과제로서 파악하고 있다.
(마쓰다 강사)

(4) 육아지원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 촉진

- 경제 4단체와 연계하여 육아를 기업이 응원하는 것이 기업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하기 좋은 기업환경의 지표로서 ‘자녀출산율(해당 기업에 재직 중에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발표와 지사의 워크라이프밸런스에 이해가 있는 기업을 표창하는 등 회사 전체가 육아에 대하여 이해를 나타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쿠보스’ 표창도 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현)
- 덴리시에서는 취업형태개혁,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ICT(정보통신기술)를 사용하여 일하는 텔레워크를 실시하고 있어 그를 위한 쉐어오피스를 시내에 오픈시켰다. 이로써 육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계속하여 일할 수 있고 통근을 위한 시간을 줄여 가족과의 시간이 늘었다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텔레워크에 행정도 연관되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일본 덴리시)
-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산후휴가라는 권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98일간의 산후휴가를 추가로 60일간 늘리기로 하였다. (중국 시안시)

(5) 가족애 · 향토애 고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 경상북도에서는 인격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가족공동체’를 테마로 조부모가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외에 퇴직한 조부모가 보육원에 와서 같이 놀아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이들은 인격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받는다. (한국 경상북도)
-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행복도의 변화에 대하여 특히 첫 아이의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협력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바람직한 가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시안시)
- 후쿠시마현은 현재 동일본대지진의 부흥단계에 있으며 대학과 단기대학이 연계하여 지역에 남은 부흥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배우고 재인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
- 젊은이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활동으로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결혼, 가정, 육아, 출산에 대하여 미리 배울 기회로서 대학에서 가족애에 관한 교양과목을 신설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초/중고생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 경상북도)

3. 향후 저출산 대책의 전망

(1) 지방창생을 염두에 둔 저출산 대책의 추진

- 지역의 장점을 현민자신이 재발견, 재인식하는 것이 지방창생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생활하며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 가고 현 외로도 홍보해 가는 것이 인구감소대책에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일본 야마나시현)

(2) 종합적인 시책 추진의 필요성

- 저출산 대책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때, 지역고용, 인구유출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역의 매력을 어떻게 발굴할지 등 다른 토의테마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종래의 복지와 육아 부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해 가려면 전체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덴리시)
- 예를 들어 육아휴가도 정규, 비정규 노동에서는 격차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도 격차가 있다. 앞으로의 시책을 생각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 이카루가초)
- 기업유치는 조세수입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젊은층의 고용을 창출하여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책인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현이 하양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정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이 어떻게 서포트 해 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과 시정촌이 링크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나라모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저출산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같이 숙고해 갈 것이다.
(일본 나라현의회)
- 저출산 대책은 지역의 정책력과 현민/시정촌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력이 시험받는 것이라고 느꼈다.
(일본 야마나시현)

(3)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전개를 위해

- 육아지원 등은 기초자치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정촌이 실시하는 육아시책이 결국 그 시정촌의 가치를 높인다는 인식 하에 현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응원해 갈 것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 어느 참가지방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강약을 어떻게 조절해야할지 참고해 가고 싶다.
(일본 후쿠시마현)
- 저출산은 직접적으로 인구의 자연적감소가 문제지만 사회적감소와 관광 등의 교류인구라는 개념도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 어떠한 순서나 전략으로 해결해 갈지는 각 지역이 그 역량과 문화, 역사를 감안하여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일본 가가와현)

총괄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젊은 세대의 결혼, 즉 가족 형성의 초기 단계의 지원에 관해서 2가지 관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젊은 세대의 일할 기회를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고용 문제이다. 산업 구조의 문제와 대졸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결단코한 지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정책과 교육 정책 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결혼 지원이다. 이것은 일본 독자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동일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 아시아의 특징으로서 결혼 후 아이를 낳는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과제임을 재차 인식할 수 있었다.

보육단계 지원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의 어느 것과는 관련되는 것으로 워크&생활 균형 등 일의 방식의 문제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 참가한 지방정부 중에서 육야카르타 특별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아시아에서 공통되고 있는 저출산이 진행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출생률이 이 정도로 감소하게 되면 향후 지방지자체는 인구적으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은 각 지자체에 있어 핵심 문제이다.

또한, 저출산문제는 그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저출산 대책과 그것을 포함한 인구 대책은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처에 달려있으며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에 참가한 각 지방 정부의 의견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개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장시간에 걸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오늘의 토론이 각자 떠안고 있는 행정 과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다면 한다.

